광주·전남 3년 내 21개 학교 신설

유치원 8·초등 4·중 5·고 2·각종 1·특수 1

광주, 초등 1곳 개발 계획 협의 중·1곳은 유보

앞으로 3년 안에 광주·전남에 21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협의 단계이거나 유보 상태인 몇몇 학교도 있어 경우에 따라 신설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유치원과 각종 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 광주 5개교, 전남 16개교 등 21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광주는 8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완택지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실중학교가 내년 3월 정식 개교한다. 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으로 정원은 816명이다. 일반 교실 24실을 포함, 모두 117실 규모이며 부지 1만2997㎡, 건축 면적 3718㎡, 연면적 1만1553㎡로 올해 12월 말 착공해 2020년 1월24일 준공될 예정이다.

고실중이 개교하면 현재 학급당 30명 안팎인 수완지구 내 중학교 과밀학급 운영이 완화돼 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어등초 병설유치원과 하남중앙초 병설유치원도 각각 2학급, 정원 50명으로 오는 9월 개원한다.

2021년에는 광주 서광유치원이 10학급, 광주예술중이 6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예술중 이설과 신설에는 807억원이 투입되고, 예향 광주의 교육SOC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에서는 내년에 유치원 3곳, 초등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개교한다. 유치원은 나주 매월, 영광 중앙초 병설, 무안 행복초 병설(9월)이 새롭게 들어서고, 초등은 여수 거문초가 적정 규모로 이설 신축되며, 무안에서는 행복초가 9월에 문을 연다.

중학교는 순천 삼산중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설되고, 나주 매성중와 무안 행복중(9월)은 신설되며, 고등학교는 나주 매성고와 문화예술 특목고인 광양 한국창의예술고가 개교한다. 매성유치원과 매성중, 매성고는 2022년 개교 예정인 매성초와 더불어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반으로 신설된다.

2021년에는 초·중·고 신설 계획은 없는 대신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116억원을 들여 12학급(원아수 221명) 규모의 행복유치원이, 담양에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2022년에는 여수 웅천지구에 웅동초와 병설유치원, 나주 혁신도시에 매성초, 광양에 특수학교인 햇살학교가 들어선다. 개교 시점을 기준으로 나란히 28학급, 3학급, 28학급, 23학급 규모다.

이런 가운데 가칭 '광주 용두2초'가 인근 개발계획 등을 놓고 시행사와 협의 중이고, 광주 남구 '노대초'가 부지를 확보해둔 채 설립이 유보된 상태여서 주변 여건 변호에 따라 신설학교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학생수가 198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공립학교 신설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분산 등을 위해 신설과 이설을 추진중"이라며 "설립이 유보된 학교의 경우 주변 개발계획과 학교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학기 학급편성 결과,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학생수는 광주가 18만1347명, 전남이 19만48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광주는 6603명, 전남은 5901명 감소했다.

광주의 학생수는 2007년 26만7000여명에 달했던 것이 인구절벽의 여파로 2017년 20만명이 붕괴됐고, 올해는 18만대를 기록했고, 전남은 2005년 30만명이 붕괴된 이후 올해 20만명대마저 무너지는 등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31개 학교(분교 포함)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신입생이 단 1명인 '나 홀로 입학'도 초등 4곳, 분교 10곳, 중학교 1곳, 분교 1곳 등 모두 16곳에 달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추모 공간에 놓인 신발 10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 앞 추모공간에는 추모꽃 사이로 신발이 놓여 있다.

관광객 추락 등 사고 잦은 애물단지 여수 거북선 모형

26억 들인 해상전시용 거북선 모형, 육상 전시 말썽

빗물 새거나 관람객 부상 등 여수시 관리 소홀 도마

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고증 용역비 등 총 사업비 40여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들여 만든 실물크기 거북선 모형이 빗물이 새거나 관람객이 다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44분께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전시한 거북선 모형의 출구 나무 계단 바닥이 파손되면서 관광객 5명이 3m 아래로 추락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 거북선 뷰포인트에서 일가족 7명이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부상자 5명은 서울보라매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순천 향대학병원, 인천 국제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김모(59·여) 씨가 중상을 입었고, 80대 등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 갑자기 계단이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거북선 모형은 2014년 육상 전시용이 아닌 바다에 띄우는 해상 전시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육상에 전시하는 과정서 이순신광장의 바다를 대부분 가린다는 지적이 꾸준했으며, 2016년 5월에는 내부에 빗물이 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몇차례 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어린이가 다치는 사례로 있었다.

여수시는 2020년 신북항 건설공사가 마무리 돼 관공선 부두가 만들어지면 거북선 모형을 해상으로 옮겨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9일 '이순신광장 거북선 추락사고 지원 대책회의'을 개최했다. 곳곳에 산재한 관광시설을 일제 점검해 긴급 보수 하고 부상자 구호와 가족 심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관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상자가 쾌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목포항내서 무면허 제트스키 조종 40대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목포항내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3)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전남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혐의다.

A씨는 이 날 오후 12시30분께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출항해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취득해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또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도 해상서 시신 발견…해경 수사

진도해상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30분께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 앞 해상에서 선장 A(56)씨가 시신이 바다에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전복 가두리 양식장 틈새에 끼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173㎝의 키에 회색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부패정도가 심해 지문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투자금 부풀려 수십억 빼돌린 30대 구속기소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부풀리는 신종 개인간(P2P) 대출사기 '오버펀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재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P2P 대출업체 대표이사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보다 낮은 액수를 모집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8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자상환금 12억원을 횡령하고 대출받는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해지해 준 뒤 2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이 총 투자 모집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서 생후 4개월 여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전북 전주에서 4개월 된 여자아이에게 아동학대 의심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여아의 친아버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께 생후 4개월 된 A양을 진료한 전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정황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뇌출혈 증세와 함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양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갓길 10대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체포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에서 B(19·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양은 A씨에게 저항해 탈출에 성공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